백성의 고기불평, 모세의 보신탕불평

(민11:10~35)

10.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후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불평처럼 하는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자라는 말에 유념하셔서 칠십인 장로를 세워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과,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지긋지긋해질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고기를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에 탐욕을 부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모세가 불평처럼 하는 하소연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백성의 고기불평, 모세의 보신탕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백성의 고기 불평, 모세의 보신탕 불평'
고기 불평이나 보신탕 불평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보신탕'이라는 말을 의외의 단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모세도 고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5~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에 '기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0~15절까지의 모세가 언짢음을 절절이 토로하는 이 부분도 기력이 떨어져서 하

는 표현이고 불평처럼 보이는 언급으로, 이유가 기력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인 기력이 떨어진 것에 비해 모세는 마음의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의 기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은 기본적으로 탐욕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그 탐욕에 마음이 머무는 상태에서 하는 감사까지도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이런 탐욕을 부렸다가 불평이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신탕을 안 주신다'고 하는 모세의 불평 같은 하소연의 내용을 오늘 알아봅니다.

이 내용이 정말 글자 그대로 모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나 품게 된 불평의 내용이었을까?
주석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첫째, 홀로 백성들의 문제와 짐을 다 짊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것인데, 문자대로 '하나님 왜 나 홀로 이 백성 전체를 담당하는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라고 나왔으므로 불평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과장된 것이지요.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도하 사건, 시내산 계약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모세가 혼자 한 일이겠습니까? 문자대로라면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혼자 했다고 하지만 모세는 막대기 같은 구실만 했을 뿐입니다. 둘째,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자기로서는 먹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제넘은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를 모세에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불평어린 하소연을 문자대로라면 마치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바에야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는 자포자기적인 불평을 하는데 교만이고 불경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죽여 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앞에서 말한 첫째, 둘째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세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문자대로 '왜 나 홀로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라는 불평을 했을까요? 문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문자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조차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라는 불평을 했을까요? 자기가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책임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 달라'고 하는 이 문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로 나타나고, 결국 그들이 주운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죽이시는 심판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나 '나 혼자 짐을 지게 했다'고 불평하면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느냐며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는 모세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자로서는 불평의 질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차원의 불평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언짢으

심이 모세의 불평어린 하소연에도 나타났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과 굴욕의 형벌인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한다.'고 하는 예고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만류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나머지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는 다른 11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고 훌륭하고 의리 있어 보이고 인간적으로 따듯해 보이는 베드로의 만류에 대해서 막8: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무 따듯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인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해 보이고 잘못 된 것 같고 과오인 것 같은 모세의 불평어린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분 같습니다. 오냐오냐 하심을 넘어서서 고분고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모세가 불평하는 내용이 너무 같잖지 않습니까? 무슨 혼자 짐을 졌다고? 언제 혼자 짐을 졌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자기가 내렸습니까? 홍해를 자기가 건너게 했습니까? 물을 먹이고 만나를 먹이는 것을 자기가 했습니까? 더군다나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의 고민거리나 해결해야 될 송사나 문젯거리들은 앞에서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에 오십 부장, 백부장을 세우라는 권고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족의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언급해왔습니다. 조직상 행정상 자기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그럼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뭔데 하나님이 이 불평어린 하소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분고분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다 들어주십니까? '혼자'라고 하는 불평에 대해서 칠십인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도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을 이야기했을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이 모세의 불평 같은 하소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탐욕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불평처럼 보이는 하소연의 성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마음에 이심전심이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자기의 고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이 모세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짢으심이 모세의 언짢음이 되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잘못해서 누군가 손해를 봤을 때에, 그 손해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당사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욕을 하는 것과 내용이 같은 것이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혼자 감당한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이거나 행정적인 혼자 감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분산이 되었어요. 그럼 무엇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일까요?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라고 할 때의 '혼자'는 탐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5감관으로 포착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감관으로는 잡히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욕구의 대체가 일어나고 갈망과 결핍의 대체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이방족속들의 탐욕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모세가 홀로 이 흐름의 역방향으로 서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이유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다른 종족들이 탐욕의 흐름을 따라 5감관이 포착하는 이 세상의 대상을 향해 흘러갈 때에, 선민 250만 명만은 5감관으로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던 것이고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로 '혼자 감당 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 자신에게 계시되셨고,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모세 자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진행되는 중이었고, 모세 자기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있는 250만 명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5감관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던 마음이 250만 명을 품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족들의 탐욕을 본받아서 고기가 없다고 250만 명이 장막 안에서, 집집이, 세대 세대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모세가 좌절하는데 이제 모세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아시겠지요?

10~15절까지의 모세의 좌절의 내용을 바꿔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선민들은 이처럼 지독하게 당신만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이방족속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성막을 통해 관계를 지속할 길을 여셨고 온갖 아름다운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는 자가 아직까지도 나 혼자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해먹겠습니다.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저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두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는 백성 250만 명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

로움에 짓눌려 버립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보이신 적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기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다른 잡 족속들이 섞여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자 250만 명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 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좌절감에 빠진 것인데 여기에서 보신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때의 상태를 고전2:3절에서 토로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선교와 영성과 신앙이 침체상태에 있을 때에 마케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합니다.(행18:5) 이때에 실라와 디모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역사들을 들을 때에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데 이게 바로 보신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목도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좌절하며 불평어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보신탕, 마음의 보신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5감관으로 포착되는 대상이 아니라 고기 결핍에 대한 욕구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일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모세 속에도 하나님의 충만이 가속화되고 하나님의 충만이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고기가 없다고 우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모세의 기운이 쇠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칠십 인을 세워서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5감관으로 실감나게 체감하는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칠십인 장로를 세우고 영을 부어주셔서 고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일 수 있는 심령들을 모세 주변에 포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모세에게 마음의 보신탕을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제 2위 되시는 아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마3: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돈 사랑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으고 쥐게 되면 기쁩니다. 승진 사랑은 승진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실

제로 승진이 손에 쥐어지게 되면 기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절입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들에게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충만해진 것을 보면 내 속의 하나님이 배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에서 5감관으로 포착되는 것이 없다고 짜부러드는 사람을 볼 때에 기력이 쇠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칠십 인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가 뭘 말하느냐?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동일하게 장로 칠십 인에게 영을 부어주셨듯이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생활화속에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이스라엘 선민 시대와는 다르게 더욱 더 쉬워졌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불평이 생기려고 할 때에 그 때마다 불평거리를 손에 쥠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곳에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져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로 채워져 기뻐하시듯이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채워져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갈 때에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김 부장님이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해 나갈 때 이것이 내게 보신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보신탕이 끊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고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맥이 빠지는 이유는 주변에 보신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 내 이웃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의 보신탕입니다. 십자가 복음 시대에 이 보신탕은 나에 달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선민이면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을 보면 내 속의 충만이 배가 되고 보신탕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신탕 그릇이 되기 위하여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약해지셨더라도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 적어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신탕을 드시라고 그릇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원기가 빠지는 일 없이 살아가시려면 누군가에게는 보신탕 그릇을 만들어놔야 하고 그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5감관으로 포착되는 세상일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화살처럼 날아들어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므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

는 것은 '평강 가운데 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서 내 보신탕 그릇을 사방에 만들어 놓으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네든 가는 곳마다 보신탕이 주어져야 원기가 회복이 되고 지속될 수 있으며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불평은 '하나님! 내 마음과 영이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누구의 마음에서도 원기를 회복할만한 보신탕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서 역사하시고 이웃을 향해가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우리에게도 불평 같아 보이는 하소연이 있을 수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직장에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라는 불평은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는 불평 같은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고기가 없어 불평함이 끝나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걱정과 근심의 어울리는 불평어린 하소연이 있다면 내가 접하고 사는 이웃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심을 한탄하며 불평어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